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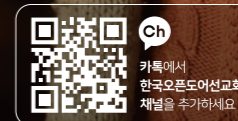
2026년 02월 VOL.

기도월력 285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 로마서 10:15 -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Open Doors

2월 27일 금요일 / 어라이즈 아프리카 (Arise Africa)

한밤중 울린 총성 소리에 아우바는 가족과 함께 목숨을 걸고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온 아우바는 살해된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과 분노 속에 아우바는 복수심을 품고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이때, 오픈도어는 아우바와 형제들을 트라우마 센터로 초대하여 상담과 실질적인 필요들을 제공했습니다. 그곳에서 치유를 경험한 아우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저는 용서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현재 아우바는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2월 28일 토요일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속히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장기화된 분쟁의 영향으로 성폭력이 만연한 끔찍한 상황이 되었고, 수많은 기독교인이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폭력으로 상처 입은 자매들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친히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는 귀한 분들에게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도월력의 기도제목들은 한국오픈도어 카카오톡채널에서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월력은 홈페이지 요청하기에서 월간 『오픈도어』 OpenDoors 신청 또는 한국오픈도어로 전화하시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2월 19일 목요일 / 모잠비크

2025년 11월, 모잠비크 북부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의 잔혹한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10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었으며, 수많은 교회 건물과 가옥이 불타서 사라졌습니다. 특히, 모스크는 피해가 없었던 반면 모든 교회 구조물은 집중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약 72,000명의 주민이 피난길에 올랐으며, 생존자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모잠비크 신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피난민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2월 20일 금요일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통치가 4년 반째 이어지는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탈레반 지도자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 소수자들에 대한 태도가 누그러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2월 21일 토요일 / 콜롬비아

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에서 한 교회가 무장 괴한들에게 며칠 동안 점거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무장 단체의 위협으로 목회자는 피신한 상태였고, 이어진 폭력 사태로 인해 교인 16명도 강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이 마을의 교회 공동체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10월 한 달 동안에만 2,081명 이상의 주민이 피난길에 올랐으며, 인도주의적 지원조차 한계에 부딪힌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져 피난 중인 기독교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생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월 22일 주일 / 이란

이스라엘과의 전쟁 여파로 많은 이란 기독교인이 훨씬 더 엄격하게 감시받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 이란에서 투옥된 교회 지도자 수가 급



[이란 여성들 기도 모임]

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에 처해 있는 비밀 신자들을 지켜주시고, 투옥된 신자들이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예배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월 23일 월요일 / 브루나이

샤리아 율법 아래에 있는 브루나이에서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는 배교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무적으로 이슬람 수업을 받아야 하는 기독교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월 24일 화요일 / 카메룬

카메룬의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위험한 지역인 극북(Far North Region)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코하람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픈도어 사역자들이 진행하는 카메룬의 생계 지원 및 경제 자립 프로젝트가 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2월 25일 수요일 / 알제리

알제리에서는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가 강제로 폐쇄되면서 성도들이 예배할 장소를 잃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교제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개종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기독교 신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재판받는 교회 지도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고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월 26일 목요일 / 중국

중국의 많은 신자들은 교회가 언제든지 폐쇄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자유가 제한된 환경 속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신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중국의 다음 세대를 계속 일으켜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중국 교회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지판]

2월 1일 주일 / 예멘

예멘에서 다시 한번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여러 사람이 체포되었고, 조사와 고문, 투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멘의 기독교인인 마젯은 자신이 붙잡힐 날을 준비하며 가능한 많은 성경 구절과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마젯과 교회 성도들은 지역 사회에 소금과 빛이 되고 싶어 하며, 예멘이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받는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두려움이 예멘 교회와 사역을 마비시키지 않게 하시며, 그들이 계속해서 진리를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월 2일 월요일 / 스리랑카

스리랑카의 가정교회 목사인 ‘칸난’과 일부 기독교인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예배 중 이웃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며 봉을 들고 협박해 예배가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웃은 이전에도 거짓 비난을 퍼붓고, 폭언과 폭행을 가해 온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칸난 목사와 신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가정 교회의 예배가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월 3일 화요일 / 시리아

2025년 11월 16일, 다마스쿠스 남쪽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는 한 마을의 벽에 다음과 같은 협박 문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알라 외에 신은 없다. 너희의 날을 피로 물들일 것이다. 이슬람 칼리프국(이슬람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최근 몇 달 동안 시리아 전역에서는 교회 벽과 주택가 담장 등 곳곳에 기독교인을 향한 모욕과 위협이 반복적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기도합니다.

2월 4일 수요일 / 동남아시아

새해를 맞아 아시아의 한 보안 국가에서 곧 시작될 성경 번역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슬림이 대다수인 이 지역의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이 일에 번역팀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재정적 필요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프로젝트 비용의 50%가 마련되었지만, 나머지 50%가 더 채워져야 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월 5일 목요일 / 필리핀

남부 필리핀의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난해에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고, 또 어떤 이는

세례를 받고 소그룹 제자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후 위험과 위협이 따랐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서 믿음이 단단히 뿌리내리며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2월 6일 금요일 / 어라이즈 아프리카 (Arise Africa)

바나바 목사는 나이지리아 북부에 위치한 국내실향민(IDP) 캠프에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와 가족들은 플라니 무장단체로부터 수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나바 목사의 가정이 안전하도록, 그리고 국내실향민 캠프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도록 기도합니다.

2월 7일 토요일 / 인도네시아

지난 12월, 수마트라의 니아스와 바탁 토바 지역 신자들에게 수천 권의 지역어 성경이 배포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700개가 넘는 지역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신자가 표준 인도네시아어 성경보다 자신들의 모국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어 성경들이 신자들의 삶 속에서 사용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복음을 전할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월 8일 주일 / 북한

북한의 노동 수용소에 갇힌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새해는 결코 축하하거나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강제 노동, 굶주림, 그리고 혹독한 사상 교육이라는 혹독한 일상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월 9일 월요일 / 방글라데시

손तो쉬는 힌두 배경에서 5년 전에 기독교인이 되었고, 지난 3년 동안 마을 힌두 공동체에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슬림 공동체, 특히 이슬람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들로부터 거짓 비난을 받고 사역 중단을 압박받아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십여 명의 무슬림 남성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일주일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다쳤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 내 힌두 배경 신자들과 소수 기독교인을 지키시고, 손तो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월 10일 화요일 / 부탄

부탄에서는 기독교 모임, 교제, 활동들이 엄격히 감시되고 있으며, 기독교인은 지역 차원과 국가 차원 모두에서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를 비우라는 임대인의 압력에 시달리는 교회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정부의 허가증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로 심해지는 박해 속에서도, 목회자와 가정교회 신자의 믿음이 날마다 굳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2월 11일 수요일 / 파키스탄

파키스탄 국경 인근 지역에서는 최근 몇 달 사이, 지역 군인들과 이웃 국가 병사 간의 충돌과 총격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위험하고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전도와 사역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기에, 일부 사역은 연기되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픈도어 사역자들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월 12일 목요일 / 키르기스스탄

새로 제정된 종교법이 현재 실제로 시행되면서, 교회가 지역에 등록이 되려면 최소 500명의 교인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등록된 교회일지라도 가정에서 예배드릴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어, 이미 최소 다섯 교회가 등록을 취소당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을 허락하시고, 신자들의 믿음이 날마다 굳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월 13일 금요일 / 어라이즈 아프리카 (Arise Africa)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나이지리아 에루쿠의 한 교회가 예배 중 무장 괴한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세 사람이 사망하고 한 사람이 다쳤습니다. 에루쿠 경찰과 민병대는 총성을 듣고 즉각 출동했지만, 범인들은 숲으로 도주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사역 대변인은 “나이지리아 북부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20년간 매일 겪어온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지리아 신자들을 지켜 주시고, 아프리카 신자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2월 14일 토요일 / 소말리아

소말리아의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는 기독교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출신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에게 큰 위협을 가합니다. 이들뿐 아니라 그

들의 가족과 친지, 더 나아가 지역 사회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비밀 신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고,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월 15일 주일 /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현지인은 정부보다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더욱 심하게 압박을 받습니다. 따라서 개종자는 고립과 박해를 피해 극도로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깊은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앱 사용이나 공개적인 신앙 표현조차 위험한 상황입니다. 2025년에는 사역자들이 추방되고, 현지 교회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약화되면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우디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외로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를 발견하고, 믿음을 지킬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월 16일 월요일 / 멕시코

멕시코의 기독교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양한 신앙을 가진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멕시코의 신자들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자주 거절과 적대감을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별력과 공활한 마음, 그리고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복음이 사랑과 진리 가운데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2월 17일 화요일 / 라오스

라오스의 겨울은 매우 춥습니다. 따뜻한 옷과 난방 시설이 부족한 농촌 신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라오스 사람에게도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이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를 돕고 기도하며,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2월 18일 수요일 / 에리트레아

에리트레아는 잔혹한 독재 정권의 통치 아래 있으며, 신앙 때문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기독교인들이 현재 악명 높은 교도소에 갇혀 있습니다. 먼저, 아프웨르키 대통령의 마음이 억압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사랑으로 향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구금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들의 가족들이 위로받아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